

<인문·사회계열(국어, 도덕,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3교시)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도덕,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기억, 역사, 공동체, 서사, 정체성, 재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기억과 정체성의 관련성 문제는 1980년대 이후 매우 시의적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이것은 이 시기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 문화적 경계가 무너지고 다시 정립되던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가령 유럽에서는 동서의 경계선이 붕괴되면서 냉전의 기억들로 점철된 한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동구권에서는 민족적인 정체성들이 되살아났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언어, 문화, 역사와 신화들이 함께 소생하였다. 당시 이러한 양상은 ‘역사의 귀환’, ‘역사의 소생’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역사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대해 전문 분야에서 다루는 학문적 연구의 의미가 아니라, 생생하게 보존되었거나 새로이 유발된 집단적, 즉 ‘기억된 과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역사는 예기치 않게 일차적인 정치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다.

오늘날 자신의 본질을 규정한다는 것은 성적, 종족적, 정치적 문제에 따라 스스로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문예학자 테레사 테라우레티스는 정체성을 “자신의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자, 그러한 자신의 역사를 담론적으로 중재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정의한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하고 망각하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의한다는 뜻이다. 기억의 개조는 곧 정체성의 개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역사 교과서의 개정, 기념비의 파괴, 공공건물과 지명의 개칭 등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나>

‘사건’의 기억은 어떻게 해서든지 타자, 즉 사건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집단적 기억, 역사의 담론을 구성하는 것은 사건을 체험하지 않은 타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에게 그 기억이 공유되지 않으면, 사건은 없었던 일로 되어 버리고 만다.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되어 버린다.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존재는 타자의 기억 저편, 세계의 외부로 내던져지게 되어 역사로부터 망각된다.

역사학자 뷔달-나케는 ‘홀로코스트’라는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유럽의 역사수정주의에 대

한 비판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 사건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역사수정주의자들을 ‘기억의 암살자들’이라고 말한다. 타자의 존재를 지워버린 예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언급할 수 있다. 이 영화는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주의에 대항하며 휴머니즘을 체현하고 있는 미국의 국민주의를 칭송한다. 그러나 이것이 부조리하게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집단적인 기억에서 배제된 사건들을 부인하고 망각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사건 하나가 예컨대 베트남 전쟁이다. 영화는 마지막 부분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을 단번에 건너뛰며, 1970년대 미국 사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남긴 그 사건이 마치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 현재의 라이언의 모습을 비춘다. 마지막 장면에서 피에 젖어 나부끼는 성조기가 상징하는 것은 미국인을 위해 미국인이 흘린 피일 따름이다. 미국인으로 인해서 흘린 타자의 피, 타자의 죽음을 영화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미국인에 의해 살해당한 베트남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망각되고 있다.

사건의 기억이, 사건의 기억에 매개되어 사건 자체가 타자에게 공유되어야만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외부에 살고 있는 타자들에게로 이르는 길, 그 회로를 우리는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건이 언어로 재현된다면, 반드시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사건의 잉여가 있게 된다. 사건의 폭력을 현재형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이유로 그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말을 지닐 수 없는 것인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사건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건의 기억을 타자와 공유하기 위해서.

사건을 체험하였고, 그 사건의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폭력을 지금도 계속하여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다. 또, 학살 사건처럼 그 폭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자, 즉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당한 폭력, 그 사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타자가 사건을 말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타자가, 사건의 외부에 있었던 제삼자가 증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그것이 말할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 사건을 제멋대로 표상하여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말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건의 말할 수 없음 자체를 증언하는 것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 <다>

**면장** 이미 들으셨겠지만, 칠산리로 자동차 길을 냅니다. 산허리를 잘라내고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나는데, 그 무덤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진 거죠. 칠산리라면 이름 그대로 산이 일곱, 험한 산 일곱이 사방을 둘러막아서…… 예전 난리 땐 빨갱이 소굴이었다고 냉대와 멀시 받던 곳인데…….

**장남** 우리 어머니 무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으면 합니다.

**면장** 안 됩니다. 오늘 안으로 옮기세요. 그 무덤 때문에 길 늦어진다고 칠산리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자식들** 우리는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시다. 우리로선 중대한 문젭니다. 어머니의 무덤을 옮긴다는 건. 자식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본 다음에 결정짓겠어요.

**면장** 내가 처음 면장이 되어 이곳에 부임해 왔을 때, 사무 인계를 하면서 전임 면장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조심하게, 이곳 주민들은 과거의 사람일세. 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죠.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 사람들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난리 속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솔직히, 난 그것이 싫습시다. 내가 산 사람들의 면장이 아닌, 유령들의 면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장남** (우울한 표정이 되며) 사실은,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도 기분 좋을 리 없죠. 특히 우

리들은요. 아무리 현재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써도…… 과거는 우리를 꼭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군요.

**면장**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당신들이 과거를 붙잡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자, 지금이라도 놓아버리세요! 칠산리의 그 무덤 옮기는 것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남** 우린 아직 다 모이지 않았습시다. 면장님, 우리는 다 모여서 의논해 봐야 합니다.

**면장** 당신이 기다리는 그가 꼭 와야 할 이유가 뭐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는 칠산리 무덤 옮기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장남** 글썬요…….

**면장** 누가 나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장남** 누가 나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면장** 사실이냐구 나에게 물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대답할 문제죠!

**장남** 글썬요……. 우리들 사상이 위험하다는 혐의를 받는 건…… 우리가 경험한 그 기억들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우리 잘못은 아녜요. 그런데도 부당하게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면장님 입장이 어떻다는 건 우리도 잘 압니다. 칠산리에 길을 내야 하구, 그러려면 무덤을 옮겨야 하는데, 이 기회에 아예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면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칠산리 주민들 모두의 희망인데, 그것은 칠산리로부터 우리들 흔적을 깨끗하게 제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 1. ‘기억’의 문제에 대한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논하시오. (1,000±100자)

### 3. 출제 의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 중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공동으로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역사 서술, 문학 서술, 박물관이나 기념관 등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이야기’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억압되는 기억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있는 역사적 폭력의 사건들, 공적 서사에서 배제된 과거 사건들을 잊지 않고 다시 이야기해 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본 문항은 과거 역사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가> 지문과 역사 속에서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의 의미를 통해 다루는 <나> 지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상황, 즉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지우고 망각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려는 공동체와 역사적 폭력의 희생자이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로 인해 그 시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는 개인들 간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의도하고 있다.

본 문항은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 1	(5) 문학 문학 갈래의 특성과 한국 문학의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며 다양한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 [10국05-04]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한다. (66쪽)	관련  문제 1 제시문 (나) (다)
	과목명: 문학		
	성취기준 1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문학 수용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며,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문학의 수용과 생산 과정에서 다양한 문학 활동을 즐기고 그 결과를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125쪽)	관련  문제 1 제시문 (나) (다)
	성취기준 2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125쪽)	문제 1 제시문 (나) (다)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우리 사회, 민족 공동체,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통합, 민족의 평화, 지구촌의 공존을 위한 윤리적 과제를 탐구하여 진정한 사회 통합과 민족 통일 및 지구촌 평화	문제 1 제시문 (가) (나)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를 실현하고자 하는 도덕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12생윤06-01]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의 양상을 제시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소통 행위를 담론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다. (45쪽)	(다)

###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 기준 1	(1)우리 역사의 형성  [10한사01-01] 역사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과거를 현재의 삶과 관련지어 인식함으로써 역사를 학습하는 목적을 이해한다. (143쪽)	문제 1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7)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냉전이 시작되는 속에서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쟁의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 전후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며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이룩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눈부신 고도 경제 성장의 과정 및 그로 인한 사회·문화의 변화상을 살펴본다. 또한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탈냉전,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확인하고, 동북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올바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10한사07-01]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발발 배경 및 전개 과정과 전후 복구 노력을 살펴본다. (150쪽)	문제1 제시문 (가) (나) (다)

#### 나) 자료 출처

#####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제구성 여부
기억의 공간	일라이다 아스만	그린비	2011	81-82	제시문 <가>	X
기억/서사	오카 마리	소명출판	2004	147-149	제시문 <나>	○
칠산리	이강백	평민사	1992	90-92 115, 117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20	64-65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182-185	제시문 <나>	○
고등학교 한국사	최준채 외	금성	2020	254-259	제시문 <가>	○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일라이다 아스만, 『기억의 공간』, 변학수 외 옮김, 그린비, 2011, 81-82쪽.**

제시문 <가>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된 과거’라고 말한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화, 역사, 이야기, 기념물, 지명 등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만드는데, 공동체는 이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가’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를 통해 자신이 정의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억의 개조는 곧 정체성의 개조이다.

**제시문 <나> : 오카 마리, 『기억 · 서사』, 김병구 옮김, 소명출판, 2004, 147-149쪽.**

제시문 <나>는 과거의 ‘사건’이 망각되지 않고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타자들’과 ‘기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건을 언어로 재현하면 반드시 재현된 현실 외부에 누락된 부분, 말해지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억압되거나 배제된 사건, 사건의 폭력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에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하게 된다. 사건 외부의 타자, 즉 제삼자에 의한 ‘이야기하기’와 이를 통한 ‘타자들과의 기억의 공유’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를 대변하겠다는 오만을 경계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의 중요성을 필자는 강조한다.

**제시문 <다> : 이강백, <칠산리>, 평민사, 1992. 90-92쪽, 115쪽, 117쪽.**

제시문 <다>는 ‘한국전쟁 중 빨갱이 소굴’이었다는 세간의 평을 듣고 있는 칠산리를 배경으로 하여 ‘어머니의 묘지 옮기기’를 둘러싼 ‘면장’과 ‘자식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면장과 마을 사람들은 칠산리의 발전을 위해 길을 내야 하니 묘를 옮겨달라고 자식들에게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이유이며 그 이면에는 ‘위험한 사상’ ‘빨갱이’ 등으로 표현되는 한국전쟁 중 칠산리에서 일어난 사건, 폭력의 과거,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자식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 면장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당장 묘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식들은 아직 다 모이지 않았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한다.

###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은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기억’의 문제에 대한 <가>와 <나>의 논지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둘째, 이를 바탕으로 <다>의 상황을 논하시오.

본 문항은 과거의 역사에 대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 형성의 관계를 다루는 <가> 지문과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이야기하기’와 ‘기억을 나누어 갖기’의 의미를 통해 다루는 <나> 지문을 이해하고, 두 지문이 모두 ‘공동체의 기억’ ‘타자와의 기억 공유’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런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다>에 나타난 ‘면장’과 ‘자식들’의 갈등 상황, 즉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를 지우고 잊은 채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려는 공동체와 폭력의 희생자이자 여전히 그 시간을 살아가며 고통 받고 있는 개인들 간의 갈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p><b>【제시문 &lt;가&gt;와 제시문 &lt;나&gt;의 논지를 비교하고 서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지문의 요지를 각각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li> <li>• 두 지문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찾고 각 지문의 관점을 비교</li> <li>① &lt;가&gt;의 논지 파악 :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한 집단의 공동의 기억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기억과 정체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li> <li>② &lt;나&gt;의 논지 파악 : ‘이야기하기’와 ‘기억 나누어 갖기’의 의미를 통해 역사적 사건의 재현 문제와 타자들과의 기억 공유의 의미를 다루고 있음</li> <li>③ &lt;가&gt;와 &lt;나&gt;의 논지 비교 : 두 지문 모두 ‘공동체의 기억’ ‘타자와의 기억 공유’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음. &lt;가&gt;는 민족 정체성 형성과 같은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lt;나&gt;는 역사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li> <li>•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li> <li>• Key Word :</li> </ul> <p>제시문 가) 기억,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 집단적 기억, 기억된 과거, 역사를 능동적으로 구성, 기억과 망각, 기억의 개조</p> <p>제시문 나) 사건, 기억, 이야기, 기억의 공유, 집단적 기억, 타자들, ‘기억의 암살자들’, 망각, 언어적 재현, 재현의 어려움, 제삼자, 증언</p> <p><b>【&lt;가&gt;와 &lt;나&gt;의 논지를 활용하여 &lt;다&gt;의 상황을 분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마을사람들을 대표하는 면장과 자식들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li> <li>• 갈등의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개발의 논리이지만 그 이면에는 지난 과거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li> <li>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한다는 것’의 관점에서, 공적 역사로부터 억압되고 배제된 사건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서술</li> <li>•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li> <li>• Key Word : 한국전쟁, ‘빨갱이 소굴’, ‘위험한 사상’, 과거의 사람, 기억, 망각, 억압과 배제, 부당한 고통과 박해,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li> </ul>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 구성과 언어 표현력이 명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과 언어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한 가지가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한 가지가 부족하고 구성과 표현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두 가지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세 가지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한 두 가지만 답하고 답안의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거의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글자 수가 8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와 무관한 답안을 작성하였거나 글자 수가 600자 미만인 경우	9등급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7. 예시 답안

제시문 <가>와 <나>는 모두 ‘공동의 기억’, ‘타자와의 기억 공유’의 중요성과 역사적 의미를 논한다. 이를 <가>는 민족 정체성 형성과 같은 집단적 기억의 문제를 중심으로, <나>는 역사로부터 배제되고 억압된 기억과 이를 타자들이 나누어 갖기 위한 ‘이야기하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는 한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억된 과거’라고 말한다.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신화, 역사, 이야기, 기념물, 지명 등이 ‘과거에 대한 기억’을 만들며, 이를 통하여 공동체는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제시문 <나>는 ‘사건’이 기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야기’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타자와 기억이 공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사건의 언어적 재현은 그 외부에 이야기되지 못한 채 누락된 부분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 부당하게 억압되고 배제된 사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기에 말하기 어려운 사건도 존재한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를 대변하겠다는 오만을 경계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일’의 중요성을 <나>는 강조한다.

제시문 <다>는 ‘한국전쟁 중 빨갱이 소굴’이었다는 칠산리를 배경으로 ‘묘지 옮기기’를 둘러싼 ‘면장’과 ‘자식들’의 갈등을 보여준다. 면장이 앞세우는 것은 칠산리의 발전을 위한다는 개발 논리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위험한 사상’ ‘빨갱이’ 등으로 표현되는 폭력의 과거, 그에 대한 기억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칠산리 주민들과 면장은 폭력으로 얼룩진 불편한 과거를 지우고 역사를 왜곡, 수정하려는 자들이다. 묘지를 없애는 일은 그 시작으로, 장소를 지움으로써 과거를 부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자식들’의 존재를 지워 망각하려는 ‘기억 암살자들’과 같은 시도다. 공적 역사로부터 부당하게 배제되고 억압된 과거를 증언하고 기억하는 일은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079자]

<인문·사회계열(국어, 도덕,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3교시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언어와 매체, 사회문화
	핵심개념 및 용어	현대사회매체, 사회문화현상, 매체문화에 대한 비판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45점)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답하시오

계 열 문 항  
2

<가>

같은 단어를 같은 검색창에 검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새로운 세대의 인터넷 필터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살펴본다. 당신이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펴보고 추론한다. ‘예측 엔진’들은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할 것인지에 대한 고유한 정보의 바다를 만든다.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내용은 걸러지고,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내용만이 먼저 표시된다. 어느 기업은 당신이 어떤 기사를 주로 읽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알고 긍정적인 면에서 당신의 기호에 맞춘 광고를 띄워줄 수도 있다. 필터링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당신은 엄청난 분량의 일상생활 데이터를 기업에게 넘기는 셈이 된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이것저것에 써보면서 매일 매일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어느 정도 입맛에 맞는 매체만 즐겨 찾았고, 나머지는 도외시해왔다. 개별화된 필터가 이렇게 강력한 유혹인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에 휩쓸리고 있다. 매일 90만 개의 블로그가 만들어지고, 5천만 개의 트위터 글이 올라오고, 6천만 개의 페이스북 계정이 업데이트되며, 2,100억 개의 이메일이 오고간다. 구글 CEO 에릭 슈미트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인류의 의사 전달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면 50억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 지금 우리는 단 이틀 만에 그 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현실은 미디어 전문가인 스티브 루벨이 ‘주의력 붕괴’라고 부르는 현상을 불가피하게 불러온다. 거리가 멀고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통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많은 정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정보를 다 챙길 수는 없다. 우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다가 이메일로 동영상으로 옮겨 다닌다. 온종일 밀물처럼 밀려드는 정보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기에 바쁜 것이다. 이때 개별화 필터가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개별화 필터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는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을 거쳐 선별되어 제공되는 온갖 선명한 사진이나 생생한 동영상은 개인들에게 또렷하게 인지되기 십상이다.

#### <나>

“그는 매일 담배를 세 갑씩이나 피웠는데도 나이가 백 살이 넘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은 해가 될 수 없다.”, “함부르크는 안전한 도시다. 나는 블랑케제네(독일 함부르크의 한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는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휴가를 떠날 때조차 대문을 열어놓고 다닌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도둑이 든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담배가 수명과 상관이 없다거나 함부르크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독일어 단어들 가운데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을까, 아니면 R로 끝나는 단어가 더 많을까? 정답은 ‘R로 끝나는 단어가 두 배는 더 많다.’이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많다고 대답한다. 그 이유는 R로 시작하는 단어가 더 빨리 떠오르기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availability bias)은 자신의 경험 혹은 자주 들어서 익숙하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머릿속에 더 잘 떠오른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보편적인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 때문에 우리는 그릇된 카드를 머릿속에 삽입한 채 세상을 돌아다닌다. 비행기 추락, 자동차 사고, 살인과 같은 죽음의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과대평가하고, 당뇨병이나 위암같이 덜 주목받는 죽음의 위험은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비행기 추락이나 폭탄 테러에 의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드물게 일어난다. 반대로 암으로 인한 죽음은 훨씬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경거리가 되고 현란하거나 떠들썩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높은 개연성을 부여하고,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낮은 개연성을 부여한다. 구경거리가 되고 현란하거나 떠들썩한 것이 뇌리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 뇌는 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극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기업체의 이사회 사무실 안락의자에는 가용성 편향이라는 벌레가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 모인 이사들은 4분기 실적표나 프로젝트 성과분석표 등 경영진이 제시한 숫자들을 보며 토론한다. 경영진에서 보여주지는 않지만 더 중요한 것들, 이를테면 경쟁자들의 강점이나 근로자들의 근무 동기 약화 또는 고객들의 태도 변화 등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간단하게 입수할 수 있는 데이터나 처방들을 의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이용한다. 그래서 종종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다>

로마교황청은 성인(聖人)을 승인하는 시성식(諡聖式)에 앞서 찬반 토론을 벌이도록 했는데, 찬성하는 쪽은 ‘신의 지지자’, 반대하는 쪽은 ‘악마의 변호인’이라 했다. 악마의 변호인은 교황청이 부여한 역할이기에 자신의 진심과는 무관하게 반대 의견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그 임무의 성격상 '신앙의 촉진자'로 불리기도 했다.

초창기 1,000여 년간 교회의 성인 추대는 다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별로 분권화되어 있었다. 지역교회에서 대중적 정서를 기반으로 성인 추대가 가능했는데, 순교자, 신앙에 헌신한 인물, 그리고 특별히 독실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정받는 인물에게도 성인의 직위를 내렸다. 그 결과 각 지역마다 성인의 수가 넘쳐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 성인 후보 측에서 제출한 내용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었다. 이에 다수 교회 관료들은 독립적인 조사관으로 활동하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성인 추대에 반대 의견을 밝힐 사람을 지명했다. 악마의 변호인 역할은 성인으로 추대될 후보자들의德行과 그들이 기적을 행했다는 평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에 대해 악마의 변호인은 사기나 우연 혹은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함을 설파하여 반대자 역할을 수행했다. 추대를 위해 제출된 모든 근거에 대해 세부항목별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후보자에게 불리한 근거들을 서면으로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었다. 악마의 변호인은 수십 년간 계속되기도 하는 시성 절차 기간 동안 반대 의견과 입증 자료를 작성하여 교황청에 제출하는데, 성인 추대가 최종 결정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교황에게 보고되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추대된 성인들은 그 이전에 추대된 성인들에 비해 실제 숫자는 적어졌지만, 더 권위를 가진 성인으로 인정받았다.

〔문제 2〕 〈가〉의 상황이 〈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다〉를 활용하여 〈가〉와 〈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1,000±100자)

### 3. 출제 의도

-〈문제 2〉를 출제한 의도는 편향성이라는 주제로, 현재 인터넷의 검색엔진이 활용하는 필터링 알고리즘이 개인 혹은 기업의 정보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임.

-편향적 정보 습득을 더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현재 디지털 매체환경을 분석하고 인터넷 이용자 혹은 기업, 인터넷 기업관점에서 정보의 편향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파악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출제 의도임.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p>3. 문화와 일상생활 (2)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볼까 정보문화의 특징을 인터넷 매체와 관련지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정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진다. ① 대중문화와 대중 매체 (113쪽) ② 대중문화의 기능 (114쪽)</p> <p>5. 현대의 사회변동 (2) 정보화에 어떻게 대응할까 정보화의 의미와 영향을 파악하고,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편리함의 긍정성과 일방성, 편향적 가능성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파악하는 자세를 가진다. ① 정보화의 의미와 양상 (183쪽) ② 정보화의 영향 (184쪽) ③ 정보화에 따른 대응방안 (185쪽)</p>	제시문 (가)
성취 기준 2	<p>1.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2) 사회·문화현상을 보는 관점에는 무엇이 있을까 개인이 가진 편향성이라는 본원적인 심리현상으로, 누구나 개인의 경험이나 충격적인 외부 자극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인지적 특성을 파악한다. ① 문화현상의 미시적 관점 (15쪽)</p> <p>2. 사회문화현상을 탐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자료 수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30쪽)</p>	제시문 (나)
성취 기준 3	<p>1. 사회·문화현상의 탐구 (3) 사회·문화현상의 탐구절차와 윤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자가 자신의 선입견과 주관적 가치, 이해관계 등을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반대되는 정보를 참고하여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객관적 태도라 한다. ① 객관적 태도 (37쪽) ② 개방적 태도 (38쪽) ③ 사회·문화 현상탐구에서의 가치개입과 가치중립 (40쪽)</p>	제시문 (다)
성취 기준 4	<p>3. 문화와 일상생활 (2)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화양상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중매체가 제공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이 가능성을 알고 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길러야 한다. ① 대중문화의 비판적 수용 (115쪽)</p> <p>5. 현대의 사회변동 (2) 세계화와 정보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은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손으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법, 인터넷 기업이 해야 할 일도 중요하다. ① 정보화에 따른 대응방안 (185쪽)</p>	제시문 (가),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각 조종자들	엘리 프레이저 이현숙·이정태 번역	알키	2011	15-17	제시문(가)	○
스마트한 생각들	롤프 도벨리 두행숙 번역	걷는 나무	2014	157-161	제시문(나)	○
레드팀	마이카 젠코 지음 강성실 번역	스핑크스	2008	6-9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Mirae N	2020	15-18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111-114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38-41	제시문 (다)	×

## 5. 문항 해설

<문제2>는 <가>의 디지털 매체 환경, 예측 엔진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렇듯 인터넷이 제공하는 정보 필터링 현상이 가용성 편향 특성을 본래부터 가진 수용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이 첫 번째 세부질문이다. 두 번째 세부질문은 디지털 매체환경이 편향성을 강화하고,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 입수에도 가용성 편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편향적 의사결정, 정보 의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반대정보, 객관적 정보의 필요성과 그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문제이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p><b>【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논지 이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문의 핵심을 이해하는 능력 측정</li> <li>• ① 제시문 가)의 예측엔진의 필터링 기능이 현재 작동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터넷 기업이 개인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편향성에 이르게 할 수 있음을 파악.</li> <li>• ② 제시문 나)의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가용성 편향 특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개인들은 자극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동시에 파악.</li> <li>•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li> </ul>	1등급

• Key Word :

- 제시문 가) 예측엔진의 필터링, 수용자 정보를 활용한 알고리즘, 정보의 홍수, 필터링을 통한 개인 맞춤형 정보, 자극적인 정보는 더 인지됨  
 제시문 나) 개인이 가진 가용성 편향, 현란하고 떠들썩한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 기업 이사회 의사결정에서 가용성 편향에 의존하는 경향

【<가>의 상황이 <나>의 성향에 미치는 영향관계 파악】

- ③<가>의 예측엔진이나 필터링, 알고리즘 기능을 활용하면 <나>의 가용성 편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측면 대두됨, 정보의 편식, 개인이나 기업의 의사결정에 편향적(일방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을 강화시킬 가능성.
- ④개인이나 기업은 가용성 편향이 있는데 필터링 기능으로 인해 더욱 편향된 정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
- ⑤<가>의 상황이나 현재 환경은 <나>가 본래 가진 편향성에 더 부정적 측면으로 영향을 준다는 부정적 측면 가능성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할 것.
- 예시답안의 전반부 참조
- Key Word : 필터링과 알고리즘은 가용편향성을 더욱 강화 가능성, 개인이 좋아하는 정보에만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 더 의존하게 될 가능성

【<다>의 논지로 <가>, <나>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술】

- 수용자 (개인) 관점에서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으로 <가>의 필터링,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의 편향성 경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평가할 것.
- ⑥수용자 (개인 혹은 기업) 관점에서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으로 <나>의 가용성편향에 의존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
- ⑦정보 공급자 관점에서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으로 <가>의 필터링 기능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
- ⑧정부와 같은 규제기관 관점에서 <가>의 필터링 기능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평가할 것.
- 예시답안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개인은 반대되는 정보에 의식적으로 노출되도록 해야, 타인 의견 적극적 경청, 기업은 객관적 정보에 의해 의사결정 해야, 예측엔진은 개인정보 수집에 더 신중히 해야, 정부(규제기관)는 인터넷 기업 (예측엔진)에 대한 필터링 기능에 대한 역할 감시와 규제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혹은②, ③혹은④, ⑤, ⑥을 모두 충족하고, 핵심어를 포함한 경우	2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 ⑤, ⑥을 충족하고,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고, 핵심어를 포함한 경우	4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였으나 논지 파악이 다소 부족한 경우	5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였으나 논지 파악이 안 된 경우	6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를 충족하였으나 일방적 문장 요약만 한 경우	7등급

①혹은②, ③혹은④ 둘 중 하나만 쓰고 논지 파악이 안된 경우	8등급
글자 수 300자 이하, 전혀 논지 파악인 안 된 경우	9등급

- ※ 하위 문항이 있는 경우 칸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작성함.
- ※ 채점 기준은 문항의 출제의도에 대한 평가를 위한 것이어야 함.

## 7. 예시 답안

<가>의 구글과 같은 예측 엔진은 수용자들이 보낸 데이터 정보를 기반으로, 즉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수용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는 수용자들에게 필터링 과정을 거쳐 내가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해주지만, 이러한 정보는 수용자 취향과 입맛에만 맞는 편향된 정보일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원래부터 각 수용자가 가진 <나>의 가용성 편향이라는 심리적 현상에 더해져 정보편식 현상을 강화시킨다. 왜냐하면 수용자의 가용성 편향이란 각 수용자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기억이나 경험, 생생한 정보에 의존하여 더 기억하는 인지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측엔진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는 원래부터 개인이나 기업이 가진 가용성 편향을 더 강화시켜 다른 정보를 배제하고, 본인이 보고자 하는 정보, 듣고자 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게 함으로써 치명적 오류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다>의 ‘악마의 변호인’ 개념을 활용하여, <가>의 예측엔진 이용자들은 나와 경험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나>의 개인은 세계를 바라볼 때에 개인경험이나 기억 등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대정보를 활용하여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나>의 기업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 즉 편향된 정보만 의존하는 것을 경계하고, 반대의 시각에서 작성된 자료, 반대 입장의 자료를 균형적으로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가용성 편향을 벗어나기 위해서 ‘악마의 변호인’제도와 같이 반대의 입장, 반대되는 정보를 의식적으로 받아들여 검토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 예측엔진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개인이 가진 취향만을 이용한 필터링이나 알고리즘 과정만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하는 방식을 벗어나 수용자들에게 객관적 정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균형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와 같은 규제기관도 이러한 예측 엔진의 알고리즘 문제점을 파악하여 편향된 정보제공을 막는 규제도 고려할 수 있다.